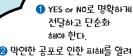


원자력전문가 및 예비전문가에게 필요한 원자력 소통 어떻게 해야 할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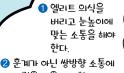
七十号 全長, ·1억川 51-21-!



무조건 조심이 오히려 해가 퇷을 알려야 한다.

③ 방사선의 긍적적 역할도 알려야 한다.

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



노력을 기울려야 한다.

③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.

^{법률방송뉴스} **왕성민** 기자

セストマアコン せいとせ 全た コミシー・トセント!



이 브로셔는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물임(No. 2020M2C7A1A0107944411).

